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발표 1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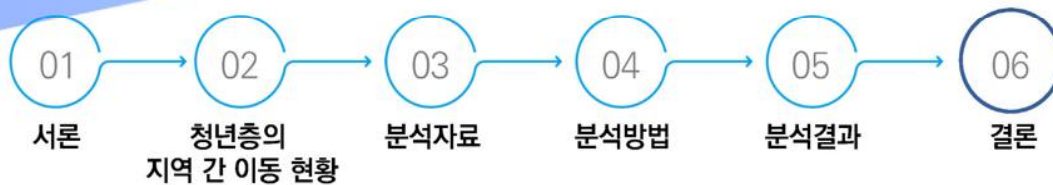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2022.03.2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 원 영

1

목 차 | CONTENTS



2

01 서론 | 연구배경

-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출생, 사망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 전통적으로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인재 유출입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지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함
-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고학력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3

01 서론 | 연구배경

- ▶ 청년층의 높은 지역 간 이동성은 기업과 노동력 간의 매칭을 원활하게 하고 청년층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게 함
- ▶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2021년 기준 7.8%(통계청)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
 -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은 단순히 인재 유출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의 변화, 기업 이전과 정부, 공공기관의 분산 등에 따라 지역 간 노동이동이 다양하게 나타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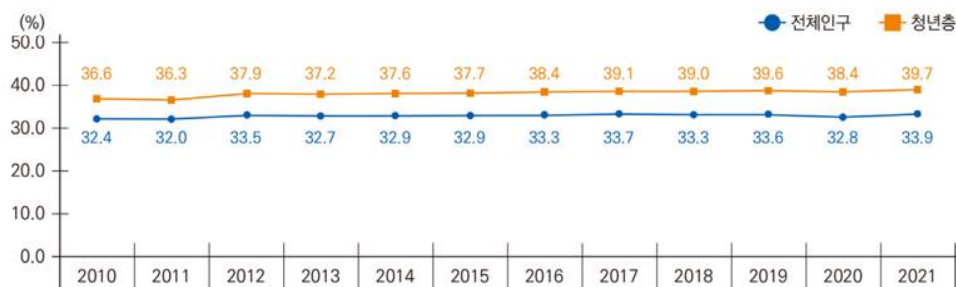
01 서론 | 연구목적

- ▶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1)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2) 지역이동으로 얻는 편익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남
- ▶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 지역 간 이동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함
- ▶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결과 청년층 고용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5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광역권별 인구이동 현황

- ▶ 우리나라의 총 이동자 수와 이동률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범위인 광역수도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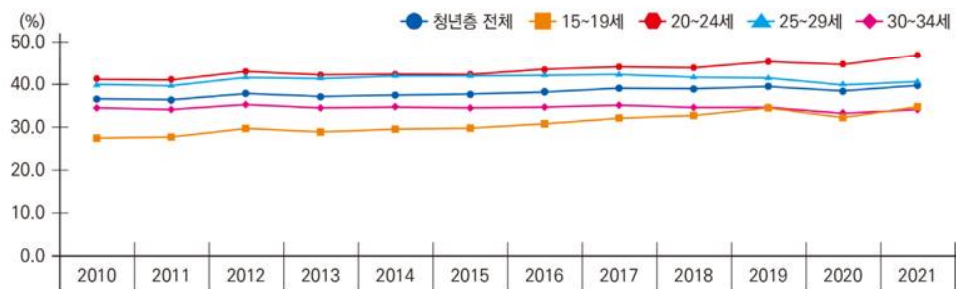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및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6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광역권별 인구이동 현황

특히 20~24세 연령층의 이동성이 강화된 것은 진학 및 취업에 기인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7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광역권별 수도권 유입·유출

2021년 기준 동남권이 대경권과 함께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가장 심한 권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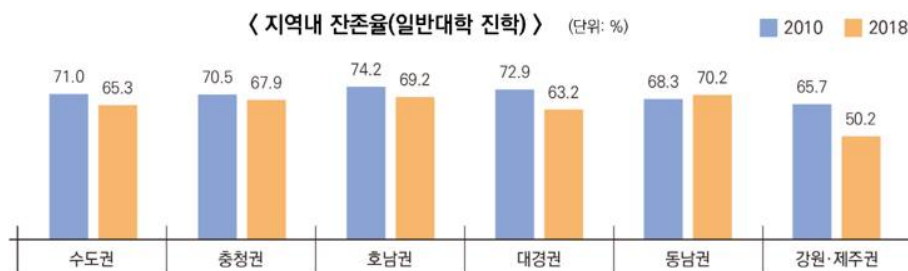
수도권으로 유출(명)		수도권에서 유입(명)		수도권의 순유출(명)
충청권	146,394	충청권	146,192	202
호남권	86,622	호남권	73,511	13,111
대경권	71,925	대경권	52,027	19,898
동남권	94,879	동남권	64,244	30,635
강원권	52,063	강원권	56,978	-4,915
제주권	18,748	제주권	21,982	-3,234

자료: 통계청(2021), 「국내인구이동통계」.

8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진학을 위한 이동 현황

- 고졸인력의 대학진학을 위한 이동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동남권(70.2%), 호남권(69.2%)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지역 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9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진학을 위한 이동 현황

- 수도권 유출률은 동남권에서는 2018년 12.8%로 2010년에 비해 낮아졌고, 대경권과 강원·제주권에서 최근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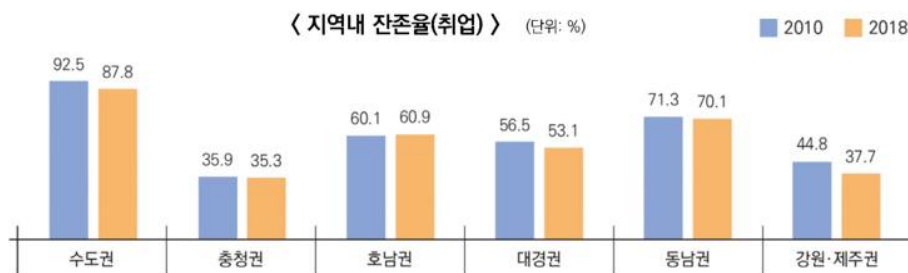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10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취업을 위한 이동 현황

- ▶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내 잔존율은 수도권(87.8%), 동남권(70.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35.3%)이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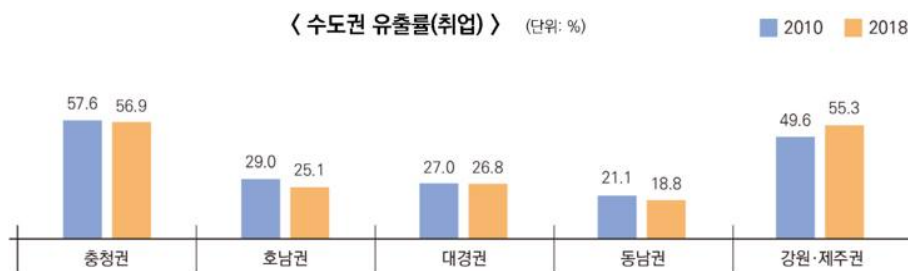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11

02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 | 취업을 위한 이동 현황

- ▶ 충청권(56.9%) 및 강원·제주권(55.3%) 일반대학 졸업자의 경우 수도권 지향성이 높게 나타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0년, 2018년.

12

03 분석 자료 | 데이터

-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 GOMS의 모집단은 매년 전년도 일반대학 졸업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료를 활용
 - 대졸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이동을 노동시장 성과 관점에서 실증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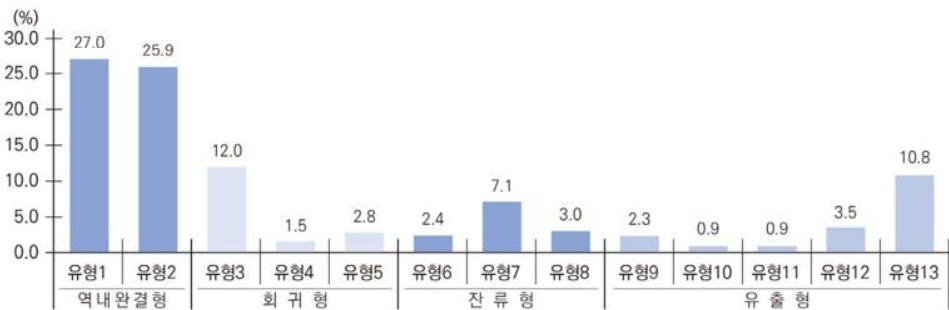
03 분석 자료 | 지역이동 유형

구 분		고등학교 소재지	대학 졸업지역	현 직장 취업지역
역내 연결형	유형 1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유형 2	비수도권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회귀형	유형 3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유형 4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유형 5	비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비수도권 (고교 소재지 동일)
잔류형	유형 6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졸업지역 동일)
	유형 7	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유형 8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졸업지역 동일)
유출형	유형 9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유형 10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유형 11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유형 12	비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지역)	비수도권 (다른 지역)
	유형 13	비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14

03 분석 자료 | 지역이동 유형별 비중

- ▶ 수도권으로의 회귀(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나 잔류(비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하기보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성장 지역에 잔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GOMS 2018 기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8년.

15

04 분석 방법 |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현 직장의 임금과 일자리 만족도를 활용
 - 지역 간 이동이 청년층의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의 성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 개인특성(연령, 성별, 부모 학력), 대학 특성(전공계열, 졸업 평점 평균), 직장 특성(사업체 유형, 규모, 종사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이동 유형에 따라 임금 격차 및 일자리만족도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16

05 분석 결과 | 지역이동의 임금효과

구 분		임금효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역내 완결형	유형 2	-0.060***	0.005
	유형 3	-0.054***	0.007
회귀형	유형 4	0.033**	0.016
	유형 5	-0.005	0.012
전류형	유형 6	-0.071***	0.013
	유형 7	0.035***	0.008
	유형 8	-0.067***	0.012
	유형 9	0.054***	0.013
	유형 10	0.016	0.021
	유형 11	0.097***	0.02
유출형	유형 12	0.023**	0.011
	유형 13	-0.011	0.007
N		44,599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장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지역이동 유형별 임금 격차는 **고등학교 이후 현 직장까지 줄곧 수도권에 머무르는 (역내완결형) '유형 1'에 비해 고등학교 및 대학 소재지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유출형)하는 유형에 속한 경우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음**

- 유형 11(비수도권-수도권-타 비수도권)의 경우 임금이 수도권 역내완결형에 비해 약 10% 높게 나타남

17

05 분석 결과 | 연도별 지역이동의 임금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역내 완결형	유형 2	-0.066*** (0.012)	-0.069*** (0.012)	-0.061*** (0.012)	-0.048*** (0.012)	-0.055*** (0.012)
	유형 3	-0.052*** (0.016)	-0.057*** (0.015)	-0.070*** (0.016)	-0.039** (0.016)	-0.051*** (0.015)
회귀형	유형 4	0.067* (0.039)	0.035 (0.039)	0.056 (0.035)	0.016 (0.034)	0.001 (0.033)
	유형 5	-0.005 (0.025)	-0.059** (0.026)	0.006 (0.026)	0.019 (0.025)	0.016 (0.026)
	유형 6	-0.062** (0.025)	-0.129*** (0.028)	-0.021 (0.031)	-0.054* (0.031)	-0.080*** (0.028)
	유형 7	0.038** (0.017)	0.039** (0.018)	0.02 (0.018)	0.050*** (0.018)	0.02 (0.017)
전류형	유형 8	-0.021 (0.024)	-0.067*** (0.026)	-0.076*** (0.027)	-0.042 (0.027)	-0.121*** (0.025)
	유형 9	0.115*** (0.032)	0.051 (0.031)	0.027 (0.029)	0.046 (0.029)	0.049* (0.027)
	유형 10	0.058 (0.046)	-0.002 (0.045)	-0.012 (0.049)	0.016 (0.045)	0.023 (0.046)
	유출형	0.131*** (0.044)	0.122** (0.051)	0.078* (0.043)	0.090* (0.047)	0.083** (0.042)
	유형 11	0.019 (0.025)	0.019 (0.025)	0.022 (0.024)	0.036 (0.024)	0.011 (0.024)
	유형 12	0.008 (0.016)	-0.012 (0.016)	-0.031* (0.017)	-0.008 (0.016)	-0.012 (0.016)
N		8,236	8,642	9,060	9,296	9,368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장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산업구조의 변화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과 같은 정책,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을 유발함

- 2018년에 유형 11(비수도권-수도권-타 비수도권)의 임금효과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유의함
- 비수도권 역내 완결형(유형 2)과 수도권 회귀형(유형 3)의 경우 수도권 역내 완결형(유형 1)에 비해 임금이 낮게 나타남

→ 권역 단위의 지역 간 이동이 실질적인 임금 변화를 수반하고 있고, 지역 간 물가나 삶의 질을 넘어서 대졸 청년층의 이동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함

18

05 분석 결과 | 지역이동의 분위별 임금효과

구 분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역내 완결형 유형 2	0.088** (0.037)	-0.078*** (0.007)	-0.089*** (0.004)	-0.090*** (0.006)	-0.078*** (0.008)
유형 3	0.231*** (0.049)	-0.021** (0.009)	-0.077*** (0.006)	-0.136*** (0.008)	-0.127*** (0.010)
회귀형 유형 4	0.045 (0.111)	-0.012 (0.019)	-0.002 (0.013)	0.070*** (0.018)	0.087*** (0.023)
유형 5	0.294*** (0.081)	-0.038*** (0.014)	-0.054*** (0.010)	-0.059*** (0.013)	-0.032* (0.017)
유형 6	-0.112 (0.088)	-0.114*** (0.015)	-0.063*** (0.011)	-0.093*** (0.014)	-0.055*** (0.019)
전류형 유형 7	-0.081 (0.055)	0.006 (0.010)	0.023*** (0.007)	0.068*** (0.009)	0.092*** (0.011)
유형 8	-0.067 (0.080)	-0.103*** (0.014)	-0.073*** (0.010)	-0.074*** (0.013)	-0.054*** (0.017)
유형 9	0.114 (0.092)	-0.005 (0.016)	0.029*** (0.011)	0.112*** (0.015)	0.151*** (0.019)
유형 10	0.257* (0.145)	0.006 (0.025)	0.009 (0.017)	-0.043* (0.023)	-0.077** (0.031)
유출형 유형 11	0.030 (0.141)	0.009 (0.025)	0.047*** (0.017)	0.159*** (0.023)	0.258*** (0.030)
유형 12	0.259*** (0.076)	0.034*** (0.013)	0.000 (0.009)	-0.007 (0.012)	-0.031* (0.016)
유형 13	0.220*** (0.050)	0.016* (0.009)	-0.029*** (0.006)	-0.081*** (0.008)	-0.086*** (0.011)
N	44,599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장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수도권 잔류형(유형 7)과 유출형(유형 9, 유형 11)의 경우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

▶ 비수도권 회귀형(유형 4)의 경우 75분위 이상 고임금 분위에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

→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에서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은 후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다시 자신의 지역으로 회귀

19

05 분석 결과 | 지역이동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구 분	직무만족도	
	추정계수	표준오차
역내 완결형 유형 2	-0.026	0.025
유형 3	-0.077**	0.033
회귀형 유형 4	-0.055	0.075
유형 5	-0.007	0.055
유형 6	0.035	0.060
전류형 유형 7	0.074**	0.037
유형 8	0.015	0.054
유형 9	-0.094	0.063
유형 10	-0.070	0.100
유출형 유형 11	0.020	0.095
유형 12	0.030	0.051
유형 13	-0.089***	0.034
N	44,599	

주: 1) 개인특성, 대학특성, 직장특성, 조사 연도 등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는 5%,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수도권 잔류형(유형 7)의 직무만족도는 수도권 역내완결형(유형1)보다 높게 나타남

→ 전공 분야, 임금 외에도 수도권에 정착 하였을 때의 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수도권 역내완결형(유형2)의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지역의 사회적 위세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비수도권에서 대학 졸업 후 수도권으로 회귀(유형 3)한 경우 임금과 직무 만족도에는 부정적 영향

20

06 결론

-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구분을 5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 직장 취업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이동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함
- ▶ 일반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대학 졸업 이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취업한 경우 오히려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개인의 특성과 함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21

06 결론

- ▶ 지역이동에 있어 성장지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 소재지로 회귀하는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나 가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기대임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지역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그리고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 지역에서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고급인력의 지역 이주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정착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임
 - 지역 규모, 특화산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기업 또는 산업과 연계된 정책이 필요

22

감사합니다